

第4回 에너지經營人懇談會 개최

에너지·資源의 國際協力戰略 토의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제 4 회 에너지經營人 懇談會를 지난 8月 9日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였다.

回數를 거듭하면서 더욱 盛況을 이루고 있는 이날 제 4 회 에너지경영인 懇談會에는 李鳳瑞 동자부부장관을 비롯하여 安秉華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과 會員社 대표, 동자부 산하기관 에너지경영인, 業界 및 團體, 學界 등 총 160명의 에너지관련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조찬과 함께 진행되었다.

〈人事의 말〉

이날 간담회는 金相演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安秉華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라는 최근 에너지界를 비롯하여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같은 에너지에 관한 당면한 문제를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韓國에너지協議會가 분기별로 에너지 경영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취지에 찬동하여 에너지관련 경영인, 전문인, 학계여러분이 매번 다수 참석하신네 대해 謝意를 표하고 오늘 懇談會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을 역임한 대한무역진흥공사 李宣基사장을 모시고 共產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資源의 國際協力戰略에 대한 주제 강연을 듣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李宣基 사장의 약력을 소개하였다.

〈主題講演〉

이날 主題講演에서 李宣基사장은 '90년대를 앞두고 공산진영의 개방화정책과 민주화의 물결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어 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경제교류 관계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東歐圈 5個國과 통상부를 두어, 무역사무

소를 교환설치하여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1세기에는 에너지가 모든 국가에서 食糧과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전망이 크며 부존자원은 풍부하나 아직까지 그 개발이 미진한 中國,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 에너지자원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무역진흥공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石炭, 石油 등 에너지자원 시장의 변화를 위해 주력하였으며 국익을 위한 경제교류를 확대하여 관계정상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수집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 page 강연문 참조)

이날 강연은 에너지경영인들의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質疑討論〉

강연이 끝난 다음 지난 간담회와는 형식을 달리 하여 業界, 協會, 學界에서 강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간담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 麗水에너지(株) 金鳳完 常任顧問 質疑

오늘 주제강연을 듣고 에너지자원의 국제협력과 특히 동구권의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진출은 각계에서 산발적, 경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창구를 一元化하여 推進하는 것이 效果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動力資源部를 폐지하고 상공부에 통합하는 상공 및 동자기능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리업계에서는 앞으로 '90년

代초반에 다가올 에너지파동을 우려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수급을 위하여 동자부폐지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자부장관을 역임한 李宣基사장께서는 당시 재임경험에 비추어 통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란다.

○ 大韓電氣協會 朴容澈 副會長 質疑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8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動力資源部의 역할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2000 年代 電源開發 計劃에 따르면 현재 시설용량 2,000 만KW에서 그 배가 되는 4,000 만KW를 확보해야 되는데 代替에너지 개발 原子力發電 건설 등 추진해야 할 일이 山積해 있다. 本人이 1960 年代 商工部 電氣局長으로 在任한 경험에 비추어 商工部산하에서는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자부장관을 역임하신 李宣基사장께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수행되도록 동력자원부의 통합안이 재론 되지 않도록 주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

○ 亞洲大學校 崔基鍊교수 質疑

에너지자원의 국제협력 및 북방교류에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는데 있어 IPECK (국제민간경제협의회)는 순수 민간친목단체이므로 이와같은 北方交易의 莫重한 在務를 修行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기구를 만들어 특혜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주기 바란다.

○ 李宣基 社長 答辯

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동자부의 상공부 통합안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련 업계, 협회와 일반 여론의 생각을 같이하는 바이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동구권 자원교류 협력의 창구일원화는 만간협력체인 IPECK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기구는 민간협조 기구임으로 상호협력체체를 갖추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정,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感謝牌 贈呈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韓國에너지協議會 安秉華會長은 에너지資源의 國際協力 戰略에 대한 강연과 業界, 協會, 學界의 질의, 토론에 답변하여 준 大韓貿易振興公社 李宣基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성황리에 제4 회 에너지 경영인 간담회를 끝마쳤다.



韓國에너지 現況 各種弘報冊子 간행

제 14 차 WEC 총회와 관련 韓國에너지協議會事務局에서는 大會參加用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對外國 弘報 뿐만아니라 국내 에너지 홍보자료로도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韓國 에너지 分野別 冊子〉

지난 '87 서울 IEC 회의 개최 당시 韓國 에너지 분야별 冊子를 발간하여 會員國을 비롯한 國内外 에너지界의 호평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第 14 차 WEC 總會에도 韓國의 에너지界의 現況을 널리 會員國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Energy in the Republic of Korea 1987" 판에 新·再生에너지 분야를 보완 추가하여 "Energy in the Republic of Korea 1989"판을 발간하였다. 이 冊子는 국어, 영어, 불어 등 3개 국어로 편집되어 각국에 이해를 돋도록 하였으며, 휴대에 간편하도록 菊版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작성 담당 기관
· Energy Demand and Supply	에너지경제연구원
·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관리공단
· Electric Power	한국전력공사
· Petroleum	대한석유협회
· Coal Petroleum	대한석탄공사
· Gas	한국가스공사 여수에너지
· Nuclear Energy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ew and Renewable Energy	한국동력자원연구소

〈National Energy Data Profile〉

그동안 WEC National Energy Data Committee에서는 國家別 에너지 통계자료 (National Energy Data Profile)를 제작·발간하여 각국의 에너지 現況을 파악하는 事業을 주관하여 왔다.

3년마다 발간하는 이 冊子는 國家別 에너지통계 비교가 용이하도록 동일한 규격과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제 14 차 WEC 總會가 끝난 후 合本으로 발행하여 각 會員國에 배부하게 된다.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이에 적극 協助하여 韓國 부분 에너지 現況을 작성하여 WEC本部와 제 14 차 WEC 總會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14차 WEC 총회 기술논문집 발간〉

제 14 차 WEC 총회에 한국에서 제출한 논문 5 편을 발췌하여 회원사 및 논문 제출자들에게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기술논문집을 발간하였다.

Division 1 'Energy and Society'

Division 2 'Energy and the Environment'

2.2.13 Environmental Assessment on Coal-fired Power Plant and It's Possible Socio-economic Impacts to the Society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 흥육회 책임연구원, 김은아 선임연구원(한전기술연구원)

Division 3 'Energy and the Economy'

3.1.2 Korea's Energy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 김호탁 교수(서울대학교)

3.2.10 An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Behavior in Korea – 이상곤 교수(인하대학교)

3.4.6 Cogeneration : Potential and Economic Decision – 권영한 기술정책연구실장, 한영선 연구원(한국전기연구소)

Division 4 'Energy and Technology'

4.1.8 Application and Field Experience with Photovoltaic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송진수 태양광연구실장(한국동력자원연구소)